

4·3문학, 팔레스타인문학, 그리고 혁명으로서 문학적 실천*

고명철**

-
1. 문제제기
 2. 4·3문학의 갱신: 4·3혁명의 문학적 실천과 혁명의 정동(情動)
 3. 팔레스타인문학: 나크바와 자기혁신을 향한 혁명의 문학
 4. 맺음말
-

1. 문제제기

‘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와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4·3 70주년과 관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통상 제주도에 한정된 곳에서만 기획·실행된 4·3관련 프로그램이 제주도 밖 국내외에서 집중적 관심을 갖고 일 년 내내 다양하게 진행된 사정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는 아마도

* 이 글은 2018년 12월 7일 제주대학교에서 한민족문화학회와 영주어문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8 동계 전국학술대회’의 ‘기획주제: 4·3 70주년,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국 문학의 새 지평을 위하여’에서 발표한 글을 다듬은 것이다. 필자의 문제의식을 심화시켜주는 데 학문적 자극을 준 종합토론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 광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란 캐치프레이즈가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4·3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채택한 이 문구를 쳐다볼 때마다 4·3의 역사적 진실과 그 해방의 가치를 곰곰 되새기다보면, 이것에 선뜻 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반감이 스멀스멀 고개를 치켜드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주최측은 이 문구를 선정함으로써 그동안 틈날 때마다 제주 4·3을 정치적 이념으로 공박해온 입장들, 가령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극렬 좌익세력의 반국가 폭동으로 일어난 사건이란 역사의 왜곡된 인식을 이번 기회를 통해 바로 잡고, 한 걸음 나아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4·3을 공식적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제도권 역사 안에서 4·3을 평가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²⁾ 그리하여 4·3의 역사적 진실을 한국사회의 공적 열린 마당에서 국민 다수와 함께 공유하기 위한 열정과 혼신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 분명, 4·3은 제주도만의 지역사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부분을 이룬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4·3의 역사적 진실과 그 가치 그리고 이것을 모두 아우르는 4·3의 역사적 정명(正名)을 숙고할 때마다 솟구치는 레디컬한 물음이 있다. 정녕, 4·3은 대한민국사의 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역사적 실재였던가. 4·3이 해방공간에서 한반도가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것을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는, 즉 단독정

2) 4·3관련 행사 중 앞서 언급한 캐치프레이즈와 직접 관련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제주 4·3 70주년 특별전’(2018.3.30~6.10)이고, 다른 하나는 재일조선인 소설가 김석범을 초청하여 작가 현기영과 광화문에서 가진 좌담(2018년 4월 6일 오후 7시)이 그것이다. 이 두 행사가 특히 대한민국의 서울 광화문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전시되고 진행되었다는 것은 그 공간의 상징성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란 홍보 문구가 지닌 국민국가의 대중적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부 수립에 대해 반대했다는 것을 상기할 때 4·3을 대한민국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4·3의 고갱이와 거리가 먼 역사적 해석이 아닐까. 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통치의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준열한 비판을 표방한 4·3이 미군정을 배후 삼아 친일파를 재등용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도권 역사 안에 자리하는 것 또한 4·3의 고갱이를 잘못 파악한 역사적 해석이 아닐까. 두루 알듯이, 제주에서 민중봉기를 일으킨 4·3의 역사 주체들은 해방공간에서 어떠한 국민국가를 세워야 할지, 이와 연관된 민주주의를 어떻게 기획 및 실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을 꿈꾸고 있었다.³⁾ 그것은 기존 일제의 식민체제의 유산을 전복하여 갈아엎고,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새롭게 구축될 냉전 질서에 구속되지 않는 온전한 민족자주공동체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한 혁명을 수행해온 것을 쉽게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말하자면, 4·3은 민중항쟁이되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한 정치사회적 미정형과 혼돈 상태에서 민족공동체의 분열과 분단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외세의 식민통치가 어떠한 형식을 통해서든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반식민주의·

3) 따라서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둘 때 4·3 민중봉기에 대한 왜곡된 역사인식을 걸러낼 수 있다. 특히 해방직후 전국적으로 여운형 주도로 꾸려진 건국준비위원회(후에 인민위원회로 변경)는 1945년 9월 6일 국가를 ‘조선인민공화국’으로 공포한 바, 이것은 엄밀히 말해 소련 군정에 기대 김일성이 세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그 성격이 다르다. 제주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건국준비위원회(인민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제주의 정상적 자치를 꾸려온 것은 가볍게 넘겨볼 수 없는 역사의 실재다. 그래서 “제주 민중의 지향점은 주변부에 처해 있는 독자적인 단위로서의 제주도에서 미쳐진 세계냉전체제, 한반도 중앙권력의 물리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데 두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국가주의적 이념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과거 독립된 단위로서 자율성을 나름대로 추구하던 섬 공동체에 가해진 외부로부터의 압박은 자연스레 섬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였을 것이며, 이 때 이들을 조직해낸 것은 지도부의 사회주의 이념이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도 남로당의 사회주의 이념은 섬사람들을 조직화 시켜낸 사상적 외피에 불과하다.”(박찬식 『4·3과 제주역사』, 각, 2008, 382쪽)

반제국주의에 투철한, 그리하여 온전하고 새로운 민족자주공동체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을 전위적으로 실현하고 싶은 정치사회 혁명의 성격을 띤다. 그렇다면, 이러한 혁명의 성격에 투철한 4·3을 승자 중심으로 재편된 공식 역사의 패러다임을 고려한 나머지 대한민국의사 부분으로 위치짓는 것이 4·3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평가와 해석을 동반한 것일까. 역사를 가정해서 소급할 수 없으나, 다시 강조하건대 4·3의 역사적 주체들이 꿈꾸고 실현하고 싶은 역사의 실재가 작금 대한민국의사란 분단된 국민국가일까. 분명한 사실은, 4·3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각기 서로 다른 정치체제로 출범하기 전 제주의 민중이 해방공간에서 민중봉기의 저항 형식을 통한 기존의 모든 정치사회적인 것을 혁신하기 위한 혁명의 성격을 전 세계에 표방했다는 점이다.

기실 이러한 4·3의 혁명에 대한 문학적 실천은 재일조선인문학 김석범(1925~)과 김시중(1928~)에게서 여실히 보증된다.⁴⁾ 그래서 4·3문학은 한국문학의 하위문학을 이루는 지역문학으로 자족하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문학(>재일조선인문학)의 문제의식을 두루 포괄하는 새로운 세계문학의 장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은 4·3문학의 개

4) 필자는 최근 4·3문학을 논의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주 민중의 저항을 다루는 4·3문학은 해방공간의 특수한 지역 문제에 한정된 ‘지역문학’으로만 인식되는 것도 아니고, 이 시기를 다룬 한국문학사를 온전히 구축시키는 차원에서 그것의 결락된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데 자족하는 한국문학, 곧 ‘국민문학’으로만 인식되는 것도 아닌, 세계 냉전체제의 발아되는 현장과 현실에 연동되는 ‘세계문학’의 문제들(problematics)로서 새롭게 인식될 수 있”(고명철(2015), 「새로운 세계문학 구성을 위한 4·3문학의 과제」, 『반교어문연구』 40집, 반교어문학회, 130-131쪽)는 4·3문학의 자기채신에 대한 문제의식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김석범과 김시중의 재일조선인문학에서 다뤄지는 4·3의 문제의식이야말로 이와 같은 필자의 문제의식을 뒷받침해준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 세 편의 글을 참조. 「재일조선인 김시중의 장편시집 『니이가타』의 문제의식」, 『반교어문연구』 38집, 반교어문학회, 2014; 「해방공간의 혼돈과 섬의 혁명에 대한 김석범의 문학적 고투-김석범의 『화산도』 연구(1)」, 『영주어문』 34집, 영주어문학회, 2016; 「김석범의 ‘조선적인 것’의 문학적 진실과 정치적 상상력-김석범의 『화산도』 연구(2)」, 『한민족문화연구』 57집, 한민족문화학회, 2017.

신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학적 토론거리를 제공한다. 4·3문학의 갱신은 4·3이 지닌 혁명으로서 문학적 실천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과제를 앞에 두고, 4·3문학과 겹쳐 읽을 수 있는 것으로 팔레스타인문학은 매우 요긴하다. 팔레스타인문학에서 가장 핵심적 문제의 식 중 하나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일어난 전대미문의 대참사인 이른바 나크바(Nakba)⁵⁾에 대한 문학적 실천으로,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서남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에게는 흡사 제주의 민중이 그랬듯이, 끔찍한 죽음과 집단학살로 인한 공동체의 파괴 및 절멸에 대한 기억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민중에게 2018년은 제주의 4·3과 마찬가지로 나크바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팔레스타인은 1948년 이후 이스라엘에게 오랫동안 그들이 거주해온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조국을 떠나 난민의 신세로 흩어져 살고 있거나 조국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죽음과 파괴와 공포가 언제 갑자기 일상을 쓰나미처럼 덮쳐올지 모르는 극도의 생존의 위기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⁶⁾ 그렇지만 이토록 극도의 삶의 난경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팔레스타인은 70년 동안 그들의 조국을 회복하기 위한 반이스라엘 투쟁을 위한 혁명을 접은 적이 없다. 아울러 팔레스타인 내부의 개혁과 혁신을 위한 혁명도 지속되고 있다. 팔레스타인문학은 이처럼 1948년 나크바 이후 70년 동안 반이스

5)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일어난 팔레스타인의 대재앙 나크바와 관련한 역사의 세목들과 그 웅숭깊은 비판은 일란 파페, 유정은 역(2017), 『팔레스타인 비극사』, 열린책들 및 우스키 아키라, 김윤정 역(2015), 『제9강 이스라엘 건국 건립과 나크바』, 『세계사 속 팔레스타인 문제』, 글항아리, 참조.

6)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장 공격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공격에 대한 보복성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를 전투기, 헬기, 탱크 등 첨단 무기를 동원하여 집중 공격하였다. 「이스라엘 공습, 팔레스타인 3명 숨져... 유혈충돌 계속」, jtbc뉴스, <http://news.jtbc.joins.com/html/268/NB11727268.html> 2018. 11. 13.

라엘을 겨냥한 팔레스타인 민족해방은 물론, 팔레스타인 내부에 켜켜이 축적된 채 부패해 들어가는 민족내부의 온갖 문제점들에 대한 쇄신과 갱신을 위한 혁명으로서 문학적 실천에 정진하고 있다. 이러한 팔레스타인 문학은 좁게는 팔레스타인이 경험한 나크바와 연관된 팔레스타인 민족차별과 민족공동체의 분열 및 해체를 도모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이 되, 넓게는 이 문학적 실천이 함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의 초상만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체성을 가진 인간이든 품고 있게 마련인 공포, 고독, 안전과 정의에의 추구, 위업, 자유와 평화에 대해 노래”⁷⁾를 추구하는 범인류애의 문학적 실천을 실현하는, 그래서 새로운 세계문학에 적극 개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⁸⁾ 말하자면, 팔레스타인문학은 서남아시아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집트 북부를 비롯하여 레바논과 시리아 및 요르단과 인접해 있는 지역문학으로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팔레스타인과 경계를 두고 서로 정치사회적으로 연동돼 있는 아랍문학의 문제의식과 포개진 새로운 세계문학의 몫을 수행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세계문학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4·3문학과 팔레스타인문학을 몇 가지 문제의식 중심으로 각각 살펴보는데, 이들 개별문학이 70주년을 맞이하는 각 역사적 진실과 실제, 즉 제주의 4·3과 팔레스타인의 나크바가 함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혁명으로서

7) 마흐무드 슈카이르(2004), 「현대의 팔레스타인문학에 대하여」, 『시작』, 2004년 가을호, 358쪽.

8) 이와 같은 성격의 팔레스타인문학이 한국문학사에서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문학평론가 임현영이 편역한 가싼 카나파니 외, 『아랍민중과 문학-팔레스타인의 비극』(청사, 1979)와 ‘자유실천문인협회’에서 발행한 기관지 『실천문학』 창간호(1980)에 실린 ‘팔레스타인 민족시집’에서이다. 사실, 팔레스타인문학은 진보적 민족문학론의 일환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집중적 관심을 갖기 시작한 제3세계문학에 대한 비평적 관심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특히 1980년대에는 제3세계적 민중의 발견과 ‘제3세계 리얼리즘’의 문제의식 아래 제3세계문학으로서 한국문학이 새롭게 추구해야 할 세계문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고명철(2018), 「1980년대 이후 한국문학에 나타난 제3세계문학의 문제의식」, 『영주어문』 40집, 영주어문학회 참조.

문학적 실천'의 과제를 주목하고자 한다.

2. 4·3문학의 갱신 : 4·3혁명의 문학적 실천과 혁명의 정동(情動)

1) 4·3혁명을 수행하는 재일조선인문학

재일조선인 작가 김석범의 잇따른 문제작 「간수 박서방」(1957), 「까마귀의 죽음」(1957), 「관덕정」(1962) 및 대하소설 『화산도』(1965~1997) 등이 일본에서 일본어로 씌어지면서 4·3에 대한 문학적 접근이 본격적으로 시도된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작가 현기영의 「순이 삼촌」(『창작과비평』, 1978년 가을호)이 발표되면서 비로소 금단의 영역에 숨죽여 있던 4·3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리고 「순이 삼촌」 이후 군부독재 정권의 온갖 억압에도 불구하고 4·3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탐문하는 한국문학의 응전은 쉼 없이 펼쳐졌다.

재일조선인문학의 양대 산맥인 김석범과 김시중의 존재는 4·3문학의 시계(視界)에서 혁명의 동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 독립투사의 뼈아픈 지적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듯, “해방은 우리 민족에게 온 것이 아니라 친일파들에게만 왔다.”⁹⁾ 김석범과 김시중은 바로 이렇게 비정상적 해방을 맞은 해방공간의 모든 문제가 압축돼 있는 제주 4·3을 주목한다. 그들은 일본에서 4·3의 역사적 성격의 본질을 명철히 꿰뚫고 있었다. 4·3은 그들에게 혁명 그 자체다. 한국어로 번역된 김석범의 대하소설 『화산도』¹⁰⁾와 김시중의 시집 『니이가타』¹¹⁾ 및 『지평선』¹²⁾을

9) 임현영(2018.10.6), 「허가시 후미히토의 5막 희극」, 『친일문인기념문학상 이대로 둘 것인가』 세미나 자료집,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민족문제연구소, 7쪽.

10) 김석범, 김환기·김학동 공역(2015), 『화산도』 1~12권, 보고서.

관통하고 있는 문제의식은 비록 4·3혁명이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으나 제주 민중이 봉기한 4·3혁명은 해방공간에서 솟구친 민주주의를 향한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바, 이것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치세력이 주도한 반공주의의 폭압 아래 그 혁명의 성격이 심각히 왜곡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마소 냉전체제로 재편되기 시작한 국제사회의 질서에 한반도가 종속됨에 따라 민주주의를 향한 일체의 논쟁과 논의들, 특히 미국중심의 정치체제에 조금이라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반공주의로 탄압되는 현실에 대한 준열한 저항과 비판을 보인다. 좀 더 부연하면, 제주의 민중이 무장봉기한 4·3혁명은 일제 식민체제가 완전히 종식되지 못한 채 그 식민권력이 새로운 제국-미국에 의해 재소환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고, 그 도정에서 미·소 냉전체제의 전조(前兆)로 가시화되기 시작한 조국분단에 대한 저항이다. 이 같은 4·3혁명으로서 문학적 실천은 김석범의 『화산도』에서 문제적 인물 이방근을 통해 여실히 읽을 수 있다. 그것은 4·3항쟁을 주도하고 있는 사회주의 당조직의 무모함·경직성·폐쇄성에 대한 이방근의 신랄한 비판에서, 그리고 4·3항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퇴행적이고 뒤틀린 이승만 정치세력 및 친일파와 미군정에 대한 이방근의 가차없는 비판을 통해 드러난다. 특히 이방근은 일제 식민주의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채 오히려 친일파를 재등용한 미군정이 한반도의 분단이 미국에게 가져다줄 정치적 반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의 정치경제적 헤게모니를 지배하는 데 궁극의 목적을 둔 징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적 문제의식을 지닌다.

때문에 김석범의 『화산도』에서 4·3을 ‘혁명/항쟁’의 시선으로 보는 것은 유효적실하다. 그것은 미소 냉전체제로 전락하고 있는 한반도의 정치적 운명에 대한 제주 인민의 ‘항쟁’이며, 그 당시 현상적으로 미소 냉전체

11) 김시중, 곽형덕 역(2014), 『니이가타』, 글누림.

12) 김시중, 곽형덕 역(2018), 『지평선』, 소명출판.

제 아래 한국사회가 일제의 식민주의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채 식민주의 유산을 떠안은 분단된 국민국가 상태를 고착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제주 인민의 ‘혁명’이다. 비록 실패한 ‘혁명/항쟁’이지만, 김석범의 『화산도』는 그래서 이후 한층 진전시켜야 할 4·3문학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달리 말해 제주 인민들이 일으킨 4·3무장봉기가 한반도의 남과 북으로 나뉘는 분단된 두 개의 국가와 그 정치체(政治體)에 대한 부정과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일제의 식민주의를 어떻게 극복하여 온전한 해방을 쟁취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근대 국가를 구성할 것인지, 그리하여 미소 냉전체제 아래 구미중심주의 근대에 기반한 국민국가를 그대로 이식 모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근대의 국가와 구성원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안의 근대(성)’에 대한 4·3문학의 새 과제를 제기한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동안 거둔 4·3문학의 성취에 만족하지 않던 4·3문학이 새롭게 기획하고 실천해야 할 문학적 상상력은 4·3항쟁이 추구하여 현상적 실패로 귀결된, 그러나 결코 쉽게 휘발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항쟁의 주체들이 꿈꿨던 원대한 세계를 섬 없이 탐문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혁명의 글쓰기는 시인 김시중에게도 포개진다. 무엇보다 김시중은 재일조선인으로서 그의 전 생애의 주름마다 좁게는 제주도, 넓게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 그리고 이것 모두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와 지구적 시계(視界)의 차원에서 투쟁의 삶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끄럽게 고백하는바, 일제 식민주의 지배체제 아래 황국신민의 삶은 해방을 맞이하여 그로 하여금 자주독립국을 세우기 위한 4·3혁명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일본으로 밀항한 이후 재일조선인으로서 일본어를 통해 문학활동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곤혹스러운 삶을 성찰한다.

김시중의 첫 시집 『지평선』(1955)은 그의 삶과 문학 세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몫을 맡고 있다. 그것은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해방을 맞이한 조선, 특히 해방공간의 혼돈 속에 민주주의적 상상력이 활발히 솟구쳤던 제주 4·3혁명에 참여했던 김시중은 화마(火魔)의 섬을 벗어나 천신만고 끝에 일본으로 밀항하였고, 그 일본에서 한국전쟁을 지켜본다.

울고 있을 눈이
모래를 흘리고 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비명을 내질렀는데,

지구는 공기를 빼앗겨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노란 태양 아래
나는 미라가 됐다

- 「악몽」 부분

김시중의 전존재를 에워싸고 있는 두려움의 실재는 곧잘 ‘악몽’으로 나타난다. 해방공간의 제주에서 솟구쳤던 민주주의적 상상력이 또 다른 제국의 폭압 속에서 대참상으로 이어지고, 정작 시인은 항쟁의 대열에서 벗어나 생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일본 열도로 밀항한다. 게다가 시인은 한국전쟁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다가 결국 엄청난 전쟁 피해 속에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조국의 냉엄한 현실을 목도한다. 물론, 그렇다고 시인이 한국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는 방관자적 태도를 취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일본에 군사 기지를 두고 조국으로 보내지는 군수물자 보급을 지연시키든지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김시중 나름대로 후방에서 그만의

또 다른 적과의 투쟁을 가열차게 벌였다(“모국의 분노는 걱정의 불꽃을 피어올리고 있다/나를 잊지 않을 당신을 믿고서/나는 당신의 숨결과 어우러지며/맹세를 새롭게 눈물을 새롭게/내 혈맥을 당신만의 가슴에 바치리라——”, - 「품」 부분).

하지만, 4·3혁명으로부터의 도일(渡日), 재일조선인으로서 또 다른 피식민자로서의 삶, 조국분단 등 김시종이 감내해야만 하는 실존적 및 역사적 삶은 “공기를 빼앗겨/목소리를 내지 못”할 정도로 “미라”로 전락한 것처럼 “비명을 내질렀는데”도 그 어떠한 소리도 낼 수 없는 ‘악몽’의 사위로 구속돼 있다. 화마(火魔)의 섬을 벗어나 생목숨은 부지했으나, 이후 김시종을 기다리고 있던 곳은 민족적 차별, 공간적 차별, 계급적 차별, 문화적 차별 등이 난마처럼 뒤엉켜 있는, 한마디로 재일조선인으로서 ‘재일(在日)의 삶’을 견디고 헤쳐나가야 할 지옥도(地獄圖)가 펼쳐지고 있는 곳이다(“오늘도 체포된 조선인./암시장 담배를 만드는 조선인./어제도 압류 당한 조선인./탁배기를 제조하는 조선인./오늘도 깎고 있는 조선인./고철을 줍는 조선인./지금도 찌부러진 조선인./개골창을 찾아다니는 조선인./폐지를 줍는 조선인./리어카가 손상된 조선인.”- 「재일조선인」 부분). 물론, 김시종에게 이 지옥도는 제주에서 미완으로 끝났으나, 도일 후 ‘재일의 삶’ 속에서 치열히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4·3항쟁의 주체들이 꿈꿨던 영구혁명으로서 문학적 실천을 수행해야 할 현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2) 제주의 4·3문학, 그 혁명의 정동(情動)

김석범과 김시종의 문학에서 보이는 4·3혁명에 대한 인식과 그 역사적 실재는 그동안 한국문학의 영토 안에서 궁리된 4·3문학을 한층 진진시킨 문학적 성취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하여 4·3문학은

한국문학 혹은 지역문학으로서 자족하는 것을 넘어 동아시아문학으로서 기존 구미중심주의 세계문학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세계문학의 몫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축적한 제주의 4·3문학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 성찰해보면서 새로운 문학적 쟁점과 실천의 지평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 현실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4·3사건은 지난해 3·1절 기념식장에서 있었던 발표사태를 계기로 하여 안으로 끓어왔던 분노와 피해의 상처가, 좌익의 무장봉기라는 하나의 출구를 빌어 터져나온 것이었다. 당시 좌익의 무장계렬라는 거 고작 300명에 불과했으나, 이 사태가 완전히 종결되기까지는 수만 명에 이르는 인명의 희생과 7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사건을 좌익의 정략적 무장봉기라고 단순화시켰을 때, 제주도민의 가슴 속에 꿈틀거리던 웬지 답답하고 어딘지 모르게 근질거리던 기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지하수로 흐르다가 마침내 표면으로 솟구쳐올라와, 강한 결속감으로 끈질긴 저항을 가능케 했던, 그 잠재적 조직력의 실체는 무엇이었던가?¹³⁾

흰머리독수리의/날개로 품은/끝에서 끝까지 만 마일/그 안에는/파괴된/하와이,/오키나와,/괌,/그리고 제주도/이들은 모두/식민지,/학살/거기에 군사기지/좌절된/죽음의/섬

- 「섬, 공통점」 전문¹⁴⁾

깊은 바다 그것이 미욱거릴 적/물결따라 스러져 너울거릴 적/우린 맹렬하게 구애를 했지/몸이 베이는지/몸이 베이는지/몸 삽서/몸 삽서/밀어

13) 김석희(2001), 제주작가회의 편, 『명울림』, 『깊은 적막의 끝』, 각, 119쪽.

14) 김경훈(2017), 『까마귀가 전하는 말』, 각.

다친 흉년에도 우린 몸으로 몸을 했네/숨을 곳 없던 시절에도/아무런 밥
 없던 시절에도/우린 몸을 산처럼 했네/몸 삼서/몸 삼서/우린 몸을 팔았
 네/미음과 미음 사이 바다를 놓고/동네마다 몸 사라고/외치고 다녔네/내
 몸과 네 몸이 하나가 되어/중국집 골목길 빙빙 돌고 돌며 한껏 목청 높였
 네/몸 삼서/몸 삼서

— 「우린 몸을 산처럼 했네」 전문¹⁵⁾

김석희의 단편 「땅울림」에서 정작 새롭게 읽어야 할 4·3문학의 전언은 무엇일까. 특히 작중인물 현용직이 전위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탐라공화국’ 건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것을 ‘독립적 자치주의’로 읽어내든지,¹⁶⁾ 육지 중앙권력에 대한 정치사회적 길항(拮抗)으로서 제주 특유의 공동체주의를 통한 독자적 분리주의에 기반한 근대 민족공동체를 추구한 것으로 읽어내는 작업¹⁷⁾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같은 논의는 4·3의 성격을,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한 좌익의 정치이념 투쟁으로 내몰린 정치 폭동으로 규정지음으로써 4·3항쟁의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고 있는 것에 대한 해석학적 투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상기시켜주기 때문이다. 이후 4·3항쟁의 역사적 진실을 탐구하는 해석학적 투쟁은 더욱 가열차게 펼쳐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작 예의 해석학적 투쟁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문학적 진실은 무엇일까. 우리가 냉철히 받아들여야 할 것은 4·3항쟁을 통해 실제 이룩하려고 했던 정치체가 무엇이었던지 그것은 조국분단의 엄연한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근대 국민국가로 좌절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4·3문학으로서 「땅울림」의 존재는 비록 허구의 세계일망정 작중인물이 품었던 탐라공화국으

15) 허영선(2017), 『해녀들』, 문학동네.

16) 김동윤(2018), 「4·3소설에 나타난 독립적 자치주의」, 『작은 섬 큰 문학』, 각.

17) 홍기돈(2015), 「제주 공동체 문화와 4·3항쟁의 발발조건」, 『탐라문화』 49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로 표상되는 가상의 정치공동체 추구가 좌절된 현실을 상기하는 것만으로 자족해야 하는가.

여기서, 문학적 진실의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4·3항쟁의 주체들이 현실적 패배의 도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공동체를 향한 꿈을 쉽게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사방이 물로 막힌 섬에서 무장봉기를 일으킨 무장대에게 바깥 세계의 물리적 지원이 결단코 쉽지 않은 지정학적 요건 속에서도 막강한 군경의 물리적 폭압에 굴복하지 않은 그 도저한 저항과 항쟁의 근원적 힘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물론, 이것은 제주 특유의 공동체주의에 젖줄을 기대고 있는 것으로, 역사의 매시기 제주 공동체의 삶을 위기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제주 공동체의 존립을 동요 및 파괴하는 권력과 질서에 대한 위반·전복·모반으로써 아예 기존 체제를 갈아엎으려는 혁명의 정동(情動)을 새롭게 발견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가 지닌 혁명의 정동은 제주의 역사가 증명해보이듯, 혁명의 성공을 통해 혁명의 성과를 얻어내기보다 혁명을 향한 꿈을 꾸되, 그 혁명은 좀처럼 이룩할 수 없었기¹⁸⁾ 때문에 ‘과정으로서 혁명’ 그 자체로서 자족할 뿐이다. 실패로 귀착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떨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제주 민중의 정동, 이것이 바로 ‘혁명의 정동’인 셈이다.

제주 민중이 발산하는 이러한 혁명의 정동은 제주 고유의 전통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한 게 아니라 위기와 파국 속에서 자칫 절멸할 수 있는 제주 민중의 현재와 미래를 보증하는 것과 이어진다. 이것은 4·3항쟁의 주체

18) 이와 같은 의미를 품고 있는 제주의 설화는 흥미롭다. 단적인 예로 ‘고종달 설화’와 ‘아기장수 설화’를 들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제주에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말하자면 혁명을 일으켜 새로운 세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걸출한 인물이 나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제주 섬의 특성상 육지의 중앙권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그 영향권 밖에 있으므로 자칫 중앙권력을 전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애초 끊어버려야 한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바,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제주는 역사의 매시기 민중의 삶을 위협당하는 데 순종하지 않고 새 질서를 꿈꾸는 혁명의 기운이 넘실대는 곳이다.

들이 4·3을 혁명으로서 수행하는 것과 분리되지 않는다. 김경훈의 시 「섬, 공통점」은 ‘흰머리독수리’로 은유된 미국이 ‘하와이-오키나와-괌-제주도’에 걸쳐 있는 태평양 일대를 팽스아메리카나, 곧 미제국의 통치 과정에서 군사기지로 전략된 채 섬의 원주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던 충격과 공포의 과거를 떠올린다. 이들 섬을 사실상 식민지배하는 미국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각종 군사기지와 관련한 죽음이 잇따르고 있는 것을 직시할 때, “제2차 대전 이후 점령군에 대하여 제주도에서와 같은 대중적 저항이 분출된 곳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¹⁹⁾고 한데서 알 수 있듯, 제주에서 전 세계적으로 타전하는 4·3혁명의 존재성은 주목할 만하다. 다시 말해 2차 대전 이후 냉전체제 아래 미국의 전 세계 헤게모니와 직결돼 있는 미군 기지가 해당 지역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죽음의 파국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해 4·3은 혁명의 정동으로 팽스아메리카나와 맞서 싸우고 있다. 이것은 4·3혁명을 해방공간으로만 한정시키지 않고 지금, 이곳에서 4·3혁명이 어떠한 문학적 진실을 생생히 되묻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제 4·3항쟁에 대한 혁명으로서 문학적 실천은 생각하기에 따라 그 다루는 소재와 대상이 심화·확장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럴 때 허영선의 시 「우린 몸을 산처럼 했네」에서 득의한 4·3혁명의 문학적 진실은 우주 대자연과 아주 자연스레 어울리는 가운데 ‘과정으로서 혁명’이 지닌 시적 진실의 힘을 배가시켜준다. 잠시 허영선의 이 시를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곰곰 숙고해보자.

제주 사람들은 몸을 잘 안다. 이 몸을 채취하기 위해 해녀는 차가운 바닷속을 헤치면서 말 그대로 몸[體/身]이 차가운 바다 물살에 베이는 것을 견뎌낸다. 바다 밖이 흥년이던 시절에도 그렇고 4·3혁명의 험난한 격랑 속

19) 양조훈(2015), 「결과 속이 다른 미군 정보보고서」, 『4·3 그 진실을 찾아서』, 선인, 79쪽 재인용.

에서도 그렇고 해녀는 몸을 채취하여 내다판다. 시인에게 해녀의 이 몸과 관련한 생업 활동은 “미음과 미음 사이 바다를 놓고” “내 몸과 네 몸이 하나가 되어”란 시구에서 보이듯, 제주 바다와 해녀 사이의 독특한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보편적 관계를 향한 시적 상상력으로 순간 번져간다. 이것은 제주어 ‘뭍’에 대한 시인의 시적 인식의 산물이다. 말하자면, 시인에게 ‘뭍’은 바다 해조류인 모자반으로서 해녀의 생업 노동을 통해 채취되는 수산 자원의 기능을 넘어 ‘뭍’을 에워싼 존재들의 신묘한 관계에 대한 사유의 지평으로 존재 가치가 바뀌는 것이다. 그것은 ‘뭍’의 초성과 종성에 자리한 미음[m]의 음가인 비음이 우주의 못존재들과 공명해내는 공명음인바, 이들 미음이 각기 서로 다른 우주의 차원에서 존재들과 공명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때 이들 공명음을 자연스레 연결해주는 역할을 ‘아래 아[·]’가 맡음으로써, 이제 ‘뭍’이란 한 음절은 바다 해초의 존재를 훌쩍 넘어 우주 만유의 존재를 표상하는 경외스러운 그 무엇으로 바뀐다.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 않은가. ‘아래 아[·]’는 한글 모음 중 ‘하늘[天]’을 의미하는 중요한 기축 모음인바, 그렇다면 ‘뭍’은 그 자체가 서로 다른 개별 우주가 연결된 또 다른 대우주를 표상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뭍’이 제주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것을 제주의 해녀가 4·3의 화마 속에서 살아냈다는 것은 결코 소홀히 넘겨버릴 수 없는 사안이다.

3. 팔레스타인문학 : 나크바와 자기혁신을 향한 혁명의 문학

1) 팔레스타인 나크바 안팎의 현실, 가싼 카나파니의 혁명적 글쓰기

역사는 엄중하고 냉혹하며 비정하기 이를 데 없는 것으로 이뤄져 있다는 것을 팔레스타인은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리고 여기에는 근대 세계체

제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서구 제국의 정치사회적 이해관계가 좀
 좀처럼 그물처럼 얽혀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의 처리 과정에서 국제연맹
 은 ‘파리평화회의’ 후 영국으로 하여금 팔레스타인 위임통치(1922)를 결
 정했는데, 영국은 그 전에 이른바 ‘벨푸어 선언’(1917)을 통해 시온주의자
 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민족 고향의 건설을 돕겠다고 한바, 기실
 영국의 정치적 의도는 “장기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을 영연방으로 만들려
 는 목표”²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다. 하지만 “영국의 점령은 이스라엘
 주권 수립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정치적 주권뿐
 만 아니라 토지 소유권조차 빼앗기는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²¹⁾함으로써
 팔레스타인 원주민에게 나크바의 대참사를 안겨주었고,²²⁾ 이후 팔레스
 타인 땅에 가까스로 남겨나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 난민의 처지로 전락하
 는 등 팔레스타인 민족의 수난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팔레스타인 수난사에서 나크바는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전 세

20) 홍미정·마흐디 압둘 하디(2018), 『팔레스타인 현대사』, 서경문화사, 78쪽.

21) 홍미정·마흐디 압둘 하디, 위의 책, 136쪽.

22)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표적으
 로 한 나크바에서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유대 무장조직의 배후에는 영국
 군의 지원을 비롯하여 유대 무장단체인 하가나(1920~1948)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였
 다는 사실이다. 하가나는 영국 위임통치 시절 창설된 유대 무장단체인바, 영국보안대
 는 하가나와 협력하여 유대 정착촌 경찰, 유대 예비 경찰, 특수 야경단을 조직하여 활동
 을 벌인다. 하가나의 무장 활동 범위와 그 무력의 기세는 점차 확대되는데, 무엇보다
 영국 위임통치 정부와 유대 시온주의자들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공동의 이해관
 계 속에서 하가나는 좀더 체계적인 군부대의 조직을 갖추게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 건
 국과 함께 이스라엘 국가 방위군 전투부대의 근간으로 그 위상을 굳건히 하게 된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홍미정·마흐디 압둘 하디, 같은 책, 91-94쪽. 흥미로운 것은 하가
 나와 나크바의 관계를 생각할 때 제주 4·3 당시 서북청년회와 대동청년단이 미군정과
 한국정부의 지원으로 군경찰에 조직돼, 국가권력을 참칭하여 제주의 민중에게 무자비
 한 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과 겹쳐진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2003),
 『제주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66-
 272쪽 참조.

계에 반인류적 범죄의 실상을 또렷이 응시하도록 한바, 무엇보다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대민족이 나치로부터 처참하게 경험했던 민족·인종청소(ethnic cleansing), 즉 제노사이드(genocide)를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에게 똑 같이 반복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게다가 나크바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종교적 차별과 배타주의마저 작동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소(聖所)를 유대교 및 기독교가 독점 장악하기 위해 이슬람교를 축출하기 위한 종교 억압과 탄압이 이스라엘과 친 이스라엘 국제사회의 집요한 움직임 속에서 중단되지 않은 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겪는 각종 정치사회적 재난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을까. 더욱이 1948년 5월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이 겪은 나크바의 대재앙으로 팔레스타인을 이루는 총체적 삶이 파괴돼 가는 것에 직면한,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강력한 저항-인티파다(intifada)²³⁾의 도정에서 생기는 그들 사이의 물리적 대립과 마찰을 어떻게 평화적 차원에서 슬기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일련의 물음들은 나크바와 직간접 관련돼 있으며, 결국 나크바에 대한 역사적 진실 추구와 나크바로 부터 희생당한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정신과 육체를 치유하기 위한 것과 연결돼 있다. 이 같은 과제는 팔레스타인 민중

23) 인티파다(intifada)는 아랍어로 ‘떨림, 동요, 전율’ 등의 사전적 의미를 뜻하는데, 애초 7~14세 어린이들의 비폭력 투쟁(‘돌’의 전쟁)으로 시작된 것으로, 1987년 12월 이후 서안과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전개돼온 팔레스타인 민족민중봉기를 통칭하는 용어로 쓰인다. 팔레스타인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 파드와 뚜간은 인티파다에 대해 “매일, 매시간 죽음의 현실을 살고 있는 시민들, 유년을 빼앗긴 아이들, 자신의 미래를 찾으려는 젊은이들이 탱크로 무장한 이스라엘 군인에 대항한다. (중략) 이들의 무기는 돌과 조국애와 저항에 대한 불굴의 의지가 전부이다. (중략) 인티파다는 팔레스타인 역사에서 그리고 아랍과 이스라엘간의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오로지 이스라엘의 점령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팔레스타인 사람이 당하는 억압과 불평등으로부터 풀려나 자유와 인간적 존엄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다.”(송경숙(2003), 『이스라엘 점령하의 팔레스타인 인티파다의 시 연구』, 『외국문학연구』 15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156쪽 재인용)

의 혁명으로 인식되고, 이 혁명의 도정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나크바 안팎의 팔레스타인 민족의 수난사에 대한 저항이다.

따라서 팔레스타인문학에서 이 혁명의 과업을 문학적 실천으로 수행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문학인에게 일종의 정언명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정언명령을 수행하는 문학인들 중 “아랍의 모든 평론가들은 거의 이의 없이 오늘날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산문 작가로 가싼 카나파니”²⁴⁾를 손꼽는데, 카나파니(1936~1972)의 글쓰기 자체가 반(反)이스라엘-반(反)나크바를 뚜렷한 목적으로 삼은,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혁명을 문학적으로 치열히 수행한다. 그의 혁명으로서 문학적 실천이 얼마나 이스라엘 정부에 치명적이었는지 그는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 암살을 당하는 비운의 죽음을 맞이한다. 그의 작품들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은 나크바의 충격과 공포, 그것에 짓눌리고 암살된 팔레스타인의 비참한 현실을 드러낸다.

“당신 딸(아부 오스만의 딸 파티마-인용자)이요?”

아부 오스만은 근심스레 머리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불길하고 이상한 예감으로 가득했다. 그 유대인 여자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자기의 자그마한 충을 들어올리더니 그것을 파티마의 머리에다 들이대었다. 늘 놀란 듯한 크고 검은 눈의 그 어린것에다.

그순간 유대인 보초 중의 한 사람이 내 앞으로 걸어오다 이 광경을 보고 내 시야를 가리고 멈추어 섰다. 그러나 나는 정확히 세 발의 총성을 들었다. 그리고 나는 아부 오스만의 얼굴이 무거운 고통으로 물결치듯 일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파티마를 보았다. 그녀는 앞으로 머리를 떨구었고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핏방울들이 타는 듯한 고통색 땅 위로 계속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단편 「팔레스타인에서 온 편지-1. 라블라에서 온 편지」, 1956)²⁵⁾

24) 송경숙(2005), 『가산 카나파니의 삶과 문학』, 한국의국어대학교 출판부, 45쪽.

우리가 알던 신도 역시 팔레스타인을 떠났으며 자신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내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피난민이 되어 있다고 나는 확신했다.(단편 「슬픈 오렌지의 땅」, 1958)²⁶⁾

“왜 당신들은 탱크 벽을 두드리지 않았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왜?”

사막은 갑자기 메아리를 되돌려보내기 시작했다.

“왜 당신들은 탱크 벽을 두드리지 않았소? 왜 탱크 벽을 탕탕 치지 않았느냐 말이오? 왜? 왜? 왜?”(장편 「불벌 속의 사람들」, 1969)²⁷⁾

카나파니는 유대인이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했는지 그 단적인 사례를 작품 속에서 증언한다. 그 충격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라물라로 쳐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여군이 팔레스타인 여자 어린이의 머리에 총을 겨눠 방아쇠를 당기는데, 팔레스타인의 무고한 양민을 향한 이런 살상행위가 아무렇지도 않은 양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난 것처럼 태연자약한 모습을 보인다. 팔레스타인의 이 같은 나크바는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비일비재한바, 그렇기 때문에 위 「슬픈 오렌지의 땅」에서 직접 연술했듯이 팔레스타인의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해온 신을 향한 절대적 믿음과도 결별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을 엄습해온 나크바의 공포와 충격으로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켜주는 아랍의 전지전능한 신이 아무런 현실적 힘을 제공해주고 있지 못하다는 종교적 열패감은 나크바가 얼마나 팔레스타인에게 대재앙인지, 그래서 이 대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팔레스타인의

25) 송경숙, 『갓산 카나파니의 삶과 문학』, 225쪽.

26) 가싼 카나파니, 김종철·천지현 공역(1996), 「슬픈 오렌지의 땅」, 『불벌 속의 사람들』, 창작과비평사, 95쪽.

27) 가싼 카나파니, 김종철·천지현 공역(1996), 「불벌 속의 사람들」, 『불벌 속의 사람들』, 창작과비평사, 1996, 91쪽.

술한 주검들이 팔레스타인 대지를 뒤덮는 과정에서 같은 민족 구성원인 팔레스타인은 고사하고, 동일한 종교 공동체로 연대를 맺고 있는 아랍 민족도 자국의 상황과 국제사회의 복잡한 정치사회 이해관계 속에서 어떠한 현실적 도움도 제공하지 못하는 암담함과 전망의 부재를 장편 「불별 속의 사람들」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 묵시록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카나파니의 나크바에 대한 혁명으로서 글쓰기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갈 영역이 있다. 그것은 팔레스타인의 수난사를 증언하고 나크바에 얽힌 팔레스타인 안팎의 정세를 탐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크바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나크바의 공포와 파괴를 안겨준 유대-이스라엘에 대한 혁명으로서 민중봉기 및 저항, 심지어 무력적 대응에 팔레스타인 민중이 적극 동참함으로써 팔레스타인 과거에 대한 향수와 복고적 태도로부터 한층 진전된 미래를 향한 혁명의 길에 기투할 것을 문학적으로 독려하고 있다는 점이다.²⁸⁾ 카나파니의 이런 혁명적 문학관을 응송깊게 이해할 때 장편 「하이파에 돌아와서」(1969)의 끝 부분에서 싸이드 부부의 비장한 대화에서 읽을 수 있듯, 비록 이스라엘 점령 지구에 둘러싸인 채 이스라엘 정부군의 급작스러운 공격이 야기하는 술한 위협에 팔레스타인이 노출돼 있어 생존과 안전을 보증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싸이드 부부는 그들의 아들이 다른 팔레스타인 젊은이들처럼 총을 들어 혁명 대열에 기꺼이 동참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싸이드는 아내에게 “내가 처음부터 우리가 여기에 오려면 필요한 건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

28) 가싼 카나파니의 이러한 전투적 혁명으로서 글쓰기는 그의 문예작품뿐만 아니라 그의 비평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가싼 카나파니, 「점령하 팔레스타인의 저항문학」, 가싼 카나파니 외, 임현영 편역(1979), 『아랍민중과 문학』, 청사. 팔레스타인 대표 시인 마흐무드 다르위시(1941~2008)에게서도 팔레스타인문학은 저항과 혁명 그 자체다. 다르위시의 팔레스타인문학 특유의 전투적 서정성과 아랍문학의 비의성에 바탕을 둔 시 세계는 부분적으로나마 시선집을 통해 한국어로 번역 소개되었다. 마흐무드 다르위시, 송경숙 역(2007), 『팔레스타인에서 온 연인』, 아시아.

았소?”²⁹⁾라고 의미심장한 혁명의 전언을 서슴없이 드러낸다.

2) 팔레스타인 내부의 자기혁신, 사하르 칼리파의 혁명적 글쓰기

혁명적 실천으로서 팔레스타인문학을 살펴볼 때 앞서 살펴본 나크바 안팎의 현실에 대한 문학적 대응 외에 주목할 것은 팔레스타인 내부의 자기혁신에 대한 팔레스타인문학의 갱신이다. 이것은 팔레스타인문학이 일궈내고 있는 또 다른 팔레스타인 혁명의 문학으로, 이스라엘 건국을 전후로 한 특정 시기에 국한된 나크바에 대한 문학적 대응에만 자족하는 것을 넘어 이스라엘 점령 지구에서 집요하게 기획되는, 유대인 정착촌 구축에 따른 팔레스타인 민족의 균열 및 분열과 해체의 가속화³⁰⁾가 야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무능력한 모습을 준열히 비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오슬로협정(1993) 이후 팔레스타인 혁명의 동력이 제도권 내부에서 현저히 그 특유의 저항성이 연성화되는 가운

29) 가싼 카나파니, 김종철·천지현 공역(1996), 『하이파에 돌아와서』, 『불벌 속의 사람들』, 244쪽.

30)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테러공격을 사전에 막는다는 이유로 2002년부터 요르단 강 서안지구를 완전히 포위하는 콘크리트 분리 장벽(두께 1m, 높이 5-8m, 길이 700km)을 쌓고 있다. “장벽은 팔레스타인 집들의 작은 마당을 가로질렀다. 집주인들은 자기 마당에 있는 나무에 열린 열매를 따러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로부터 특별 허가증을 받아야 했다. 이런 일이 21세기 ‘멋진 신세계’라는 악몽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장벽은 또한 서안 지구의 많은 마을들을 고립시켰다. 마을 주민들은 학교, 직장, 경작지, 묘지에 갈 수가 없다. 안보라는 명분으로 최종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식민주의자들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시 한 번 보통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과 죽음을 대가로 치르고 있다. 식민주의자들의 최종 목표는 이것이다. ‘땅은 최소화하고 사람들은 최소화한다.’//머지않아 장벽은 팔레스타인 사회를 도시별로 해체해 각 도시를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지역적, 인구적 단일체를 자생력이 부족한 땅 조각들로 낱알이 쪼개버릴 것이다. 식민주의자들은 팔레스타인인들로 하여금 장벽을 새로 주어진 현실로 받아들이 우리의 상상력과 존재가 나아갈 수 있는 한계가 거기까지라고 체념하게 만들려는 것이다.”(바쉬르 살라쉬, 『우리더러 날아보라고!-지상의 장벽과 상상의 경계들』, 『팔레스타인과 한국의 대화』, 신경림·자카리아 무함마드 외(2007), 팔레스타인을 잇는 다리 역, 열린길, 38쪽)

데 켜켜이 쌓인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부정부패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내부 정파 사이(대표적으로 온건 투쟁노선을 견지하는 PLO와 급진적 투쟁 노선을 표방하는 하마스)의 갈등과 마찰이 무관하지 않은바, 무엇보다 팔레스타인 혁명의 주체들이 팔레스타인 내부의 근대화를 소홀히 간주한 것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회피해서 곤란하다. 달리 말해 반이스라엘 및 반나크바의 투쟁과 병행되어야 할 중요한 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내부의 근대화인바, 팔레스타인 근대의 정체화(停滯化)·퇴행화·지체화는 팔레스타인이 투쟁해야 할 대상(이스라엘)에 시쳇말로 먹히는, 즉 식민지로 순식간에 전락하여 흡수·동화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작금 현실을 고려할 때 기우(杞憂)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아직도 팔레스타인은 민족해방을 비롯하여 팔레스타인 안팎으로 과단성 있게 추구해야 할 근대의 과제들이 적지 않다. 말하자면 팔레스타인의 혁명은 나크바와 관련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크바 이후 팔레스타인에게 펼쳐지고 있는 난경을 전복·위반·모반하는 혁명의 과제를 수행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래서 팔레스타인문학은 혁명으로서 문학적 실천의 새로운 과제를 적극 발견해야 한다. 팔레스타인에게 혁명은 ‘영구혁명’의 성격을 띠듯, 반이스라엘-반나크바와 함께 병행해야 할 팔레스타인 내부의 자기쇄신을 향한 뼈를 깎는 반성적 성찰이 절실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팔레스타인 여성 작가 사하르 칼리파(1941~)는 팔레스타인문학의 이러한 측면, 즉 ‘과정으로서 혁명’을 치열히 실천하고 있다. 그의 문학을 두고, “저항문학으로서 기능하면서 동시에, 저항이라는 개념이 지닌 유일성이나 근본주의자들의 태도에 저항하는 문학”³¹⁾이라

31) Philip Metres, “Vexing Resistance, Complicating Occupation: A Contrapuntal Reading of Sahar Khalifeh’s Wild Thomas and David Grossman’s The Smile of the

는 평가는 그래서 매우 적실하다. 이러한 점을 눈여겨볼 때, 칼리파의 작품이 앞서 살펴본 카나파니의 서사와 구분되는 점이 있다면, 나크바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칼리파가 나크바에 대한 역사적 몰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나크바 이후 이스라엘 점령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민중을 비롯하여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민중의 현실 속에서 팔레스타인의 자기쇄신을 향한 팔레스타인 내부자들을 향한 혁명의 글쓰기에 천착하고 있다.

- 바로 이런 거야.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억압과 제지 속에 지내지. 중학교에서는 개성을 말살당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그들은 비생산적인 교육 내용으로 우리를 파김치가 되게 하는 거야. 게다가 가족들은 우리에게 의사나 기술자가 되기 위해 높은 평점을 받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지. 또 우리가 의사나 기술자가 되면 가족들은 그동안의 학비를 갚으라고 하지.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우리가 여기서 쥐꼬리만한 월급이나 받게 하려고 그들 심장의 피를 우리에게 쏟아 붓진 않아, 그러니 떠날 수밖에 없는 거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걸프 지역으로 일하러 갈 수밖에. 결론적으로 지식인들은 찾아 볼 수 없게 되고, 나라에는 노동자와 농부 외에는 남지 않게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원하고 바라는 일이야. 노동자가 됐든 아니면 의사나 기술자가 됐든 우리가 똑같이 남는다면, 우리의 정신은 하나가 되고 투쟁 방식도 하나가 될 거야. 비굴한 정신. 무기력한 마음. 사람들은 기계처럼 일만 할 뿐 감히 “아니오”라고 말할 엄두를 못 내고 있어.³²⁾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에 맞서고 있고, 이스라엘의 배후엔 미국과 서양의 과학이 있다. 국민은 뿌리부터 시작해 망가진 지도부와 문명을 가지고

Lamb”, *College Literature*, 2010, 37:1, p.92: 김인숙(2015), 「팔레스타인 디아스포라의 귀환」, 『서강인문논총』 42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35쪽 재인용.

32) 사하르 칼리파, 송경숙 역(2005), 『가시 선인장』, 한국의국어대출판부, 62-63쪽.

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조차도 버거운 처지다. 빈곤, 무지, 분열, 사람들은 신이 해결책을 내려주시길 기다리며 모스크로 향한다. 우리는 우리의 세상에서 도망친 이들이게 저항한다. 이들은 혁신과 환상을 가져왔고, 이로써 정신은 파괴되었고, 그나마 남아있던 일말의 이성조차 갈려버렸고, 심연만이 깊어졌다. 그런 존재와 우리가 맞서고 있는 것이었다. 이는 우리를 석기시대로 끌고 갈 뿐이다. 백만 년은 퇴보했다. 유산은 부질없고, 체제는 떡잎부터 글렀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국가를 세울까? 남들이 무너뜨리고 있는데?³³⁾

위에서 확연히 읽을 수 있듯, 칼리파의 장편소설 『가시 선인장』(1976)에서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 통렬하게 내뱉는 팔레스타인 내부의 치명적 문제점 중 하나인 교육 과정과 관련한 팔레스타인 민족지성의 빈곤에 대한 자기비판이야말로 나크바 이후 팔레스타인의 구체적 현실에서 일상으로 마주한 것이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간과해온 혁명의 척결 대상이었다. 그리고 다른 장편소설 『뜨거웠던 봄』(2008)에서는 팔레스타인에게 간절히 요구됐던 근대화를 추구하지 못한 팔레스타인 혁명이 심각히 결여하고 있던, 어쩌면 반이스라엘 정치투쟁과 무력 투쟁에 치우친 나머지 혁명을 수행하는 데 전략·전술이 치밀하지 못한 데서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문제점을 신랄히 비판한다.

칼리파에게 이 모든 것들은 당장 눈 앞에 놓인 혁명의 과제들을 조금씩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둔 문학적 실천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그보다 칼리파에게 중요한 것은 나크바 이후 그토록 숭한 팔레스타인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의 현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을 정도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근대화는 이뤄지지 않은 채 무엇 때문에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지, 특히 오슬로협정 이후 팔레스타인

33) 사하르 칼리파, 김수진 역(2016), 『뜨거웠던 봄』, 케포이박스, 271-272쪽.

자치 정부는 그 이전과 적어도 평화적 모양새를 보이는 국내의 정세를 적극 활용하여 팔레스타인의 현실적 삶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이스라엘의 압도적 정치사회 환경에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굴종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어떤 경이적 순간을 왜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지에 대한 냉철한 자기비판의 심문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칼리파에게는 이 치열한 자기비판의 심문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팔레스타인문학이 반이스라엘-반나크바의 혁명으로서 문학적 실천과 다를 바 없는 칼리파식 혁명의 글쓰기인 셈이다.

칼리파의 이러한 혁명의 문학적 실천은 장편소설 『유산』(1997)의 끝부분에서,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에서 벌어진 차마 웃지 못할 희비극적 소동을 통해 극명히 드러난다.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 안에서 문화센터 개원식이 열리는 날 이를 축하해 주러 온 팔레스타인 내부의 주요 요직 관료들과 해당 지역 유지 및 일반 대중이 한데 어울려 잔치판이 벌어졌는데 개원식 준비의 부족과 행사 진행 과정에서 생긴 불미스러운 일들이 중첩되면서 개원식은 난장판이 되고 만다. 그런데 하필 이 어수선하기 이를 데 없는 난장판 속에서 팔레스타인 한 임신부가 출산에 임박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임신부를 병원으로 신속히 옮겨야 할 지경에 이른다.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들이 그렇듯 아무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를 한다고 하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행정권이 무용지물인 이스라엘 전략촌 건설에 따른 이스라엘군의 검문소가 곳곳에 설치되면서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는 말이 자치 지구이지 사실상 이스라엘 정부의 주도면밀한 전략촌 건설의 확대에 의해 팔레스타인 대중의 삶의 기반은 균열·분리·분산, 급기야 해체 및 이산(離散)의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듯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무능력한 통치에 대해 칼리파는 묵과하지 않는다. 칼리파가 보기에, 이 무능력함 속에서 팔레스타인 혁명의 미래가 어떻게 속화되고 변질되며 형해화(形骸化)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명확하

기 때문이다.³⁴⁾

4. 맺음말

이상으로 4·3문학과 팔레스타인문학을 혁명으로서 문학적 실천에 초점을 맞춰 그 주요 문제의식을 살펴보았다. 각기 서로 다른 지역에서 1948년을 전후 하여 일어난 역사적 사건, 즉 동아시아 작은 섬 제주도에서 일어난 4·3사건과 서남아시아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 건국 전후로 일어난 나크바는 모두 2차 대전 이후 서구 제국주의의 새로운 식민주의 지배와 직간접 관련돼 있다. 특히 2018년 그 70주년을 맞이하여 4·3문학과 팔레스타인문학은 역사의 대참사가 지닌 상처를 기억하고 그것을 배태시킨 폭력의 양상을 새롭게 주목하는 것은 물론, 그 반인류적 폭력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 쏟고 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34) 칼리파의 다음과 같은 자조(自嘲) 섞인 자기비판, 말하자면 작품 속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지사가 이수라장이 된 개원식장을 빠져나가는 길에서 수행하는 자기비판은 그래서 팔레스타인 내부의 자기혁신을 위해서도 매우 긴요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미완의 혁명으로 지금도 값진 희생을 치르고 있는 인터파다의 성스러운 민중봉기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하는 팔레스타인의 역사적 소명을 실천하는 도정에서 경청해야 할 전언이다. “지사는 마진과 함께 서서 성채, 곧 뒷에서 빠져나갈 방도를 의논했다. 지사는 이 지역 출신이면서도 지역을 잘 몰랐다. 오랜 점령과 몇 십 년 동안의 유랑과 부재로 인하여, 그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수 세대 동안 살아온 친족들 사이에서 손님이나 관광객처럼 되어버렸다. 친족들은 그를 자신들의 일부라고 느끼지 않았다. 아니, 그가 그들의 일부인지 아니면 저들의 일부인지도 알지 못했다. 우리의 일부와 저들의 일부, 즉 우리와 저들 너와 우리는 곧 다른 언어, 다른 행위, 다른 민족, 다른 유형지, 즉 그가 살아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유형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가 자신의 나라 안에 있되 민족은 바깥에 있고 그는 이 곳 성채 안에 갇혀 있는 것이다. 안과 밖, 경찰과 치안 군, 자치정부와 체제, 헛갈리는 여러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즐거움이 장례식으로 변한 비참한 민족. 지금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 뒷에서 탈출하는가였다.”(사하르 칼리파, 송경숙 역(2009), 『유산』, 아시아, 374-375쪽)

근대의 국민국가 건설에 수반되는 맹목화된 정치사회적 이념 및 배타적 민족/인종주의가 초래한 가공할만한 폭력과 파괴에 대한 문학적 저항은 쉽 없이 펼쳐지고 있다.

비록 그 구체적인 역사의 정황은 서로 다르지만, 제주와 팔레스타인이 겪은 4·3사건과 나크바는 인간이 어디까지 절대악의 지경에 이를 수 있는지를 여실히 입증해보였는데, 그것은 제노사이드, 민족공동체의 해체와 분열 및 난민화의 대비극으로 드러났으며 아직도 이 비극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4·3문학과 팔레스타인문학이 보인 문학적 대응은 기존 세계문학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바, 그것은 각기 문학이 토대를 두고 있는 역사적 진실이 함의한 혁명의 정동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각 문학이 어떠한 혁명의 정동을 지니고 문학적 실천으로 구체화되고 있는지는 본문에서 논의한 바와 같다.

이제 글을 맺으면서, 4·3문학과 팔레스타인문학이 새로운 세계문학에 적극 개입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안을 추후의 과제로 남겨볼까 한다. 그것은 각기 추구해야 할 미완의 혁명으로서 문학적 과제가 있겠지만, 좁게는 각 문학이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정치사회적 영토(동아시아, 서남아시아)를 대상으로, 넓게는 그것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된 상상의 영토를 대상으로 4·3혁명과 팔레스타인 혁명이 수행하는 평화의 공동체를 위한 문학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결코 관념의 추상태로서 존재하는 문학 플랫폼이어서는 곤란하다. 가령, 기회가 있을 때마다 4·3과 연관시켜 되풀이 강조되곤 하는,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평화의 가치와 충돌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입에 오르내린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예멘 난민들이 제주에 입도했을 때 한국 사회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비롯하여 도내외 일반인 다수가 보였던 예멘 난민들에 대한 극도의 혐오주의와 차별적 시선은 ‘평화의 섬’이란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제주도 역시 근대 국민국가의 배타적

민족주의에 강하게 구속돼 있고, 더욱이 서구 사회에서 흔히들 보이듯 이슬람교에 대한 종교적 배타성도 이들에 대한 냉소와 거부의 구체적 행동에 묻어나 있는 것을 쉽게 목도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냉혹한 현실과 맞닥뜨릴수록 4·3문학은 그 특유의 4·3혁명의 문학적 실천을 더욱 버려야 할 것이다. 4·3혁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일체의 배제와 차별에 근거한 근대의 폭력과 억압을 일소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러한 것을 낳는 근대의 행태악(行態惡)과 구조악(構造惡)의 체제를 송두리째 전복시키고 상생과 공존의 평화 체제를 구축시키는 혁명을 실천하는 일이다. 4·3문학은 바로 이러한 혁명의 정동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달리 말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삶의 새로운 터전을 찾아 제주를 선택했을 때 ‘평화의 섬’으로서 제주가 지닌 아름다운 가치를 그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4·3문학의 갱신은 바로 4·3혁명의 현재적 물음 앞에서 평화의 플랫폼 역할에 대한 문학적 실천을 궁리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4·3문학은 제주를 동아시아의 정치군사적 이해관계의 전략 기지로서 묵시록적 현실을 그려내는 지옥에서 벗어나³⁵⁾ 전 세계의 상처받고 소외받은 소수자들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 찾아오는 상상의 플랫폼으로서 사랑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4·3혁명이 미완의 혁명으로서 그리고 영구혁명으로서 존재해야 할 이유다.

여기서, 팔레스타인문학도 4·3문학과 흡사하다.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이 겪은 나크바는 결코 쉽게 잊혀져서 안 된다. 유대인의 홀로코스트가 그랬던 것처럼 팔레스타인 민중의 나크바는 인류가 존속하는 한 인류사에서 망각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고향

35) 이 문제와 관련하여 4·3문학이 ‘미래책임’의 윤리의식과 결합한 혁명의 글쓰기로 결코 소홀히 해서 안 되는 것은 강정의 해군기지 건설에 따라 수반되는 온갖 문제적 현실이다. 이 해군기지가 근대 국민국가의 배타적 정치의식을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제국의 군사적 역할로 전략하는 데 대해 4·3혁명의 새로운 글쓰기 과제가 4·3문학에 부과될 것이다.

땅에서 자의반타의반 쫓겨난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삶이 아무렇게나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를 빼앗겨 잃었다고 팔레스타인 난민을 헐벗은 생명체로 간주해서도 안 된다. 비록 예전과 비교하여 현저히 축소되었고, 그나마 그 땅마저 이스라엘의 주도면밀한 전략촌 건설에 따라 자꾸만 분열 및 해체되고 있으나 쉽게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의 삶의 터전을 혁명의 혹독한 과정을 통해 자기쇄신해야 한다. 팔레스타인 민족해방이 가장 급선무이지만, 명심할 것은 민족해방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과 민족해방을 최우선시 여긴 나머지 팔레스타인 내부의 자기혁신을 등한시하면서 점차 팔레스타인 자기소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처럼 반혁명적인 것도 없다. 그래서 팔레스타인문학은 민족해방과 동시에 자기 내부의 쇄신과 혁신을 병행하는 근대추구 역시 매우 중요하다. 팔레스타인문학에서 혁명은 가히 전방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팔레스타인문학에서도 혁명은 미완의 성격을 띠고 영구혁명으로서 존재 가치를 얻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팔레스타인 역시 지정학적으로 서남아시아의 이스라엘과 인근 아랍 국가들 사이에 위치한, 보기에 따라서는, 이들 정치문화적 갈등과 대결 지역의 완충지로서 중요한 몫을 맡는바, 제주처럼 팔레스타인도 '평화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평화의 플랫폼'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평화롭게 만나며 지역 분쟁의 불길을 끄고 인류의 평화 공동체를 향한 꿈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4·3문학도 그렇지만 팔레스타인문학도 지금까지 구속돼 있던 구미중심주의 세계문학 질서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문학 쟁점을 생성시킴으로써 기존 근대를 넘어선 '대안의 근대'를 창안하지 못할 법도 없지 않은가.

따라서 4·3문학과 팔레스타인문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4·3혁명과 팔레스타인 혁명은 '과정으로서 혁명'을 포기한 적 없이 새로운 세계문학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투고연장일	: 2019년 02월 17일
논문투고일	: 2019년 01월 31일
심사개시일	: 2019년 02월 26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3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9년 03월 13일

K C I

■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가싼 카나파니, 김종철·천지현 공역(1996), 『불벌 속의 사람들』, 창작과비평사.
- 가싼 카나파니 외(1979), 임현영 편역, 『아랍민중과 문학-팔레스타인의 비극』, 청사.
- 김경훈(2017), 『까마귀가 전하는 말』, 각출판사.
- 김석범, 김환기·김학동 공역(2015), 『화산도』 1~12권, 보고서.
- 김석희(2001), 『땅울림』, 제주작가회의 편, 『깊은 적막의 끝』, 각출판사.
- 김시중, 곽형덕 역(2014), 『니이가타』, 글누림.
- _____, 곽형덕 역(2018), 『지평선』, 소명출판.
- 마흐무드 다르위시, 송경숙 역(2007), 『팔레스타인에서 온 연인』, 아시아.
- 사하르 칼리파, 송경숙 역(2005), 『가시 선인장』, 한국외국어대출판부.
- _____, 송경숙 역(2009), 『유산』, 아시아.
- _____, 김수진 역(2016), 『뜨거웠던 봄』, 케이이박스.
- 자유실천문인협회 편(1980), 『팔레스타인 민족시집』, 『실천문학』 창간호.
-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2003), 『제주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 허영선(2017), 『해녀들』, 문학동네.
- 「이스라엘 공습, 팔레스타인 3명 숨져 ... 유혈충돌 계속」, jtbc뉴스,
<http://news.jtbc.co.kr/html/268/NB11727268.html> 2018. 11. 13.

2. 단행본

- 김동윤(2018), 『작은 섬 큰 문학』, 각출판사.
- 박찬식(2008), 『4·3과 제주역사』, 각출판사.
- 송경숙(2005), 『갓산 카나파니의 삶과 문학』,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신경림·자카리아 무함마드 외(2007), 『팔레스타인과 한국의 대화』, 팔레스타인을 잇는 다리역, 열린길.
- 양조훈(2015), 『4·3 그 진실을 찾아서』, 선인.
- 우스키 아키라, 김윤정 역(2015), 『세계사 속 팔레스타인 문제』, 글항아리.
- 일란 파페, 유경은 역(2017), 『팔레스타인 비극사』, 열린책들.
- 홍미정·마흐디 압둘 하디(2018), 『팔레스타인 현대사』, 서경문화사.

3. 논문

- 고명철(2014), 「재일조선인 김시종의 장편시집 『니이가타』의 문체의식」, 『반교어문연구』38집, 반교어문학회, 495-522쪽.
- _____ (2015), 「새로운 세계문학 구성을 위한 4·3문학의 과제」, 『반교어문연구』40집, 반교어문학회, 127-153쪽.
- _____ (2016), 「해방공간의 혼돈과 섬의 혁명에 대한 김석범의 문학적 고투-김석범의 『화산도』 연구(1)」, 『영주어문』34집, 영주어문학회, 183-217쪽.
- _____ (2017), 「김석범의 ‘조선적인 것’의 문학적 진실과 정치적 상상력-김석범의 『화산도』 연구(2)」, 『한민족문화연구』57집, 한민족문화학회, 7-36쪽.
- _____ (2018), 「1980년대 이후 한국문학에 나타난 제3세계문학의 문체의식」, 『영주어문』40집, 영주어문학회, 177-198쪽.
- 김인숙(2015), 「팔레스타인 디아스포라의 귀환」, 『서강인문논총』42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13-242쪽.
- 마흐무드 슈카이르(2004), 「현대의 팔레스타인문학에 대하여」, 『시작』가을호, 350-360쪽.
- 송경숙(2003), 「이스라엘 점령하의 팔레스타인 인터파다의 시 연구」, 『외국문학연구』15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151-174쪽.
- 임현영(2018), 「히가시 후미히토의 5막 희극」, 『친일문인기념문학상 이대로 둘 것인가』 세미나 자료집,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민족문제연구소, 10.6, 6-12쪽.
- 홍기돈(2015), 「제주 공동체 문화와 4·3항쟁의 발발조건」, 『탐라문화』49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123-160쪽.

국문요약

4·3문학, 팔레스타인문학, 그리고 혁명으로서 문학적 실천

고명철

이 글은 4·3문학과 팔레스타인문학을 혁명으로서 문학적 실천에 초점을 맞춰 그 주요 문제의식을 살펴본 것이다. 각기 서로 다른 지역에서 1948년을 전후 하여 일어난 역사적 사건, 즉 동아시아 작은 섬 제주도에서 일어난 4·3사건과 서남아시아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 건국 전후로 일어난 나크바는 모두 2차 대전 이후 서구 제국주의의 새로운 식민주의 지배와 직간접 관련돼 있다. 특히 2018년 그 70주년을 맞이하여 4·3문학과 팔레스타인문학은 역사의 대참사가 지닌 상처를 기억하고 그것을 배태시킨 폭력의 양상을 새롭게 주목하는 것은 물론, 그 반인류적 폭력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 쏟고 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근대의 국민국가 건설에 수반되는 맹목화된 정치사회적 이념 및 배타적 민족/인종주의가 초래한 가공할만한 폭력과 파괴에 대한 문학적 저항은 쉽지가 않다. 이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역사의 정황은 서로 다르지만, 제주와 팔레스타인이 겪은 4·3사건과 나크바는 인간이 어디까지 절대악의 지경에 이를 수 있는지를 여실히 입증해보였는데, 그것은 제노사이드, 민족공동체의 해체와 분열 및 난민화의 대비극으로 드러났으며 아직도 이 비극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4·3문학과 팔레스타인문학이 보인 문학적 대응은 기존 세계문학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바, 그것은 각기 문학이 토대를 두고 있는 역사적 진실이 함의한 혁명의 정동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각기 추구해야 할 미완의 혁명으로서 문학적 과제가 있겠지만, 좁게는 각 문학이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정치사회적 영토(동아시아, 서남아시아)를 대상으로, 넓게는 그것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된 상상의 영토를 대상으로 4·3혁명과 팔레스타인 혁명이 수행하는 평화의 공동체를 위한 문학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4·3문학도 그렇지만 팔레스타인문학도 지금까지 구속돼 있던 구미중심주의 세계문학 질서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문학 쟁점을 생성시킴으로써 기존 근대를 넘어선 ‘대안의 근대’를 창안할 수 있다. 왜냐하면 4·3문학과 팔레스타인문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4·3혁명과 팔레스타인 혁명은 ‘과정으로서 혁명’을 포기한 적 없이 새로운 세계문학에 적극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어 : 4·3문학, 팔레스타인문학, 4·3혁명, 팔레스타인혁명, 과정으로서 혁명, 나크바, 혁명의 정동, 제2차 세계대전



Abstract

4·3 Literature, Palestine Literature, and Literary Praxis as a Revolution

Ko, Myeong-cheol*

This paper shows a significant consciousness how to focus on literary praxis as a revolution of 4·3 literature and Palestine literature. What happened historic accident in another region before and after 1948, i.e. the April third uprising in Jeju a little island of eastern Asia and the Nakba before the establishment of Israel in Palestine of the southwest Asia are directly related to new colonial domination of western imperialism after the 2nd world war. Especially as the 70th anniversary in 2018, 4·3 literature and Palestine literature have remembered overwhelming catastrophe heart, newly recognized the aspect of its violence, tried to effort to cure the heart of antihuman violence. Meanwhile literary resistances have continuously been going against violence and destroy depended on political ideology and exclusive nationalism/racism by building a nation state.

Regarding this, although the concrete historic situations are different, the April third accident and the Nakba emerge how much close to the status of absolute devil. It has been emerged

* KWANGWOON University

genocide, national communities dismantle and division as well as refugee of great tragedy. And they are still going on. Literary responses by 4·3 literature and Palestine literature intervene existent world literature, it is closely related to revolutionary affect based on each literature involving historical truth.

Besides, although there is literary agenda as unaccomplished revolution to pursue, it should establish literary platform for peace communities of which 4·3 revolution and Palestine revolution have accomplished when it comes to as narrowly each literature copes with political territory (eastern Asia, southwest Asia) practically, as widely beyond its limit copes with global imaginary territory. Of course, meanwhile 4·3 literature and Palestine literature can create alternative modern overcoming existent modern as they break Eurocentric world literature and produce new literary agenda. That's why 4·3 literature and Palestine literature, rooted on 4·3 revolution and Palestine revolution, have never forgiven revolution of process, intervened new world literature.

Key-words : 4·3 Literature, Palestine Literature, 4·3 Revolution, Palestine Revolution, Nakba, revolutionary affect, revolution of process, the 2nd world war